
재난서사의 새로운 동향과 포스트휴먼 감수성의 출현

—김초엽, 정세랑, 두나의 소설을 중심으로

이소연(연세대학교, 강사)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재난의 경험과 재건의 상상력: 『지구 끝의 온실』
- III. 방법으로서의 재난과 새로운 문명: 『리셋』, 『7교시』
- IV. 인류의 종말과 '우리'의 시작: 『두 번째 유모』
- V. 나오며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0년대를 전후하여 한국문학장에 나타난 재난서사를 살펴보고 이러한 서사들에 나타난 새로운 포스트휴머니즘 감수성에 대해 밝힌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한국 문학에는 재난을 다룬 묵시록적 서사가 많이 창작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재난서사는 세상의 종말을 예감한 인류의 절망과 파멸의 징후로 채워져 있다. 최근 즉 2010년을 전후해 발표된 한국 소설에서는 세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는 새로운 인물상을 제시한다. 이 작가들은 기존 재난서사의 전통과 SF 장르의 관습을 충실하게 계승하여 인간이 비인간과 공생하는 새로운 문명을 제시함으로써 포스트휴머니즘적 감수성을 드러낸다.

주제어: 재난서사, 재난, 종말, SF, 페미니즘, 트러블, 인간, 비인간, 공생, 포스트휴머니즘, 인류세

I. 들어가며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한국문학장에는 재난을 소재로 한 서사들이 전면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핵전쟁, 기후위기, 바이러스의 창궐, 외계 행성의 충돌 등 급격히 닥쳐온 재난에 대한 상상력은 파국, 종말 같은 인접한 소재와 함께 대중문화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 십여 년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 미디어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재난을 다룬 콘텐츠들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쏟아 놓았다.

장성규는 “2000년을 전후하여 전 세계적으로 문학을 시작으로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 영역에서 이른바 ‘세기말적 상상력’이 대두했으며 이는 “다양한 형태의 재난 서사(disaster narrative) 콘텐츠로 표출되었다”라고 진단한다.¹⁾ 또한 김지혜는 2000년대 이후 묵시록적 재난서사가 많아지게 된 것에 대해 “재난의 상상력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스템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공포를 담아내고 있다”고 진단하는 한편 이러한 증상은 “위협은 존재를 명확하게 포착할 수 없는 현대 사회의 ‘포보포비아(phobophobia, 공포에 대한 공포증)’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²⁾ 심지어 김영삼은 우리가 이미 일상화된 재난 속에 살고 있는 ‘재난 공동체’라고 단언한다. 최근 사회에 공포와 불안 또는 혐오와 차별 등의 정동이 만연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일상화된 재난의 징후에서

- 1) 장성규, 「파국과종말의상상력: 한국 재난 서사 콘텐츠를 중심으로」, 『스토리엔이미지텔링』 제19집, 2020, 건국대학교 스토리엔이미지텔링연구소, 191-192쪽. 같은 논문에서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재난서사로 다음과 같은 텍스트들을 거명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문학에서 편혜영, 김사과, 배명훈, 윤이형, 윤고은, 두나 등의 소설과, 〈해운대〉, 〈타워〉, 〈터널〉 등의 영화를 기점으로 인간의 제어 영역을 넘어서는 불가역적 재난을 모티프로 한 서사 콘텐츠들이 생산-유통되기 시작했다. 이후 재난 서사 콘텐츠는 보다 다양한 장르로 분화되어 현재까지 활발히 생산-유통되고 있는 바, 이전 시기 주로 자연에 의한 재난에 국한되어 있던 경향은 과학기술의 물신화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변종 바이러스의 창궐(영화 〈감기〉, 〈괴물〉, 〈연가시〉, 〈돌연변이〉, 편혜영의 소설 등), 좀비의 탄생(윤이형, 이서영 등의 소설, 영화 〈부산행〉, 〈창궐〉,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웹툰 〈좀비를 위한 나라〉 등), 나아가 종말 이후의 인간의 삶을 다루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콘텐츠(김보영, 두나 등의 소설, 영화 〈설국열차〉, 모바일 게임 〈서울 2033〉 등) 등으로 확산되어 나타나고 있다.”(192쪽)
- 2) 김지혜, 「재난 서사에 담긴 종교적 상징과 파국의 의미」, 김애란, 윤고은, 정용준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70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57쪽. ‘포보포비아’란 용어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저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지그문트 바우만, 조은평·강지은 옮김,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동녘, 2010, 250쪽.

비롯된 것이며 최근의 한국소설은 이러한 정동을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³⁾ 오히려 “재난의 서사는 재난을 상상하지 않고서는 불안을 견딜 수 없는 강박증 시대의 마스터플롯”이라는 분석과 함께 재난서사의 효용을 주장하는 연구도 제출되었다.⁴⁾

김영삼은 특히 서구에서 재난서사가 기독교의 묵시록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데 반해 2000년대 이후 한국 소설의 재난 서사들에는 “구원 없는 디스토피아적 전망이 많다”는데 주목한다. 소영현 역시 “구원 없는 세계의 끝에 대한 상상”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 부재에서 현실에 갇혀 고립된 개인”들이 최근 한국문학의 우세종이라고 진단하고 있다.⁵⁾

이러한 재난서사의 종말론적 징후를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와 연결시켜 분석한 복도훈의 분석은 더욱 암울하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끝’이라는 일종의 불가사의하고도 기괴한 판타지 속에서 인간과 다른 생명체 모든 것이 지구에서 멸망한 상태로 또는 지구조차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생명체 없는 지구와 우주에서 각각 고독하게 자신의 플롯을 영원히 작동시켜나가는 자본주의의 공장과 기계를 묵묵히 응시하고 있는 것이다.”⁶⁾

이러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주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적 견해를 추출할 수 있다. 세기말적 정서가 지배하던 1990년대는 물론이요 90년대의 영향력이 지속되던 2000년대 초반의 재난서사는 세상의 종말을 예감한 인류의 절망과 파멸의 징후로 채워져있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한국문학에 나타나는 재난의 양상은 암울하거나 그로테스크하고, 심각하게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 세계의 종말의 이미지로 재현된다. 이 한 가운데 있는 등장인물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한 트라우마를 겪으며 가까스로 죽음을 면한 경우에도 멸망해 가

3) 김영삼, 「구원 없는 재난 서사와 혐오의 정서 - 김에란의 「물속 콜리앗」과 손홍규의 『서울』을 대상으로」, 현대소설연구 제7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68-69쪽.

4) 강유정, 「재난서사의 마스터플롯」, 『세계의 문학』 151, 2014년 봄호, 62-63쪽.

5) 소영현, 「민주화의 역설과 한국소설의 종말론적 상상력 재고」, 『한국문예창작』, 제12권 1호, 한국문예창작회, 2013, 245쪽.

6) 복도훈, 「세계의 끝: 최근 한국소설에 나타난 재난의 상상력과 이데올로기적 증상」, 『인문학연구』 42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11쪽. 강조는 인용자.

는 세계를 향해 우수어린 시선을 보낸다. 90년대부터 재난과 파국의 이미지를 소설에서 펼쳐온 편혜영, 백민석, 조하형 등을 비롯해서 김애란, 김성중, 박민규 등이 발표했던 재난서사들은 현실과 미래에 대한 절망적인 비전을 암울하고도 기괴한 상상력을 통해서 표현하곤 했다. 그러나 이들의 암울한 미래 비전이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로 채워진 것은 아니었다. 이들의 작품은 인류가 마주한 위기를 비극적 이미지리를 통해 극대화시킴으로써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는 문명에 경고하고 대중의 각성을 통해 재난을 방지하거나 대비하도록 촉구한다.

이러한 재난을 소재로 한 서사는 한때의 유행에 그치지 않고 201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활발하게 창작되고 있다. 이는 환경, 경제, 그리고 전쟁과 전염병의 창궐 등 전 지구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양상을 보이고 있기에 놀랄 일이 아니다. 2014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그리고 해마다 심해지는 기상이변과 미세먼지, 장기적인 경제 불황 등은 지구가 점점 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문학에서도 우리 시대가 마주한 재난의 양상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즉 2010년을 전후해 발표된 한국 소설에서는 재난과 역사의 파국을 재현하는 서사들에서 큰 변화의 조짐이 목격된다.⁷⁾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재난서사에 등장하는 재난의 양상 자체가 바뀌었다든가 위기의 강도가 경감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이는 소설이 재난을 소재로 하되 이를 제시하는 방식과 정조가 변화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재난과 재난이 온 이후의 묵시록적 상황을 경험하는 인물들의 감수성과 행동 양상이 예전의 재난 서사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변화의 추세 속에서 더욱 예각적인 변화 양상을 보여주며 역사의 중

7) 강은교는 “한국 창작 SF가 평단의 주목과 대중적인 호응을 얻게 된 것은 2010년대 들어 처음으로 이루어진 현상이다.”라고 진단하면서 가장 큰 원인을 SF와 페미니즘과의 조우로 보고 있다. 강은교, 「한국 SF와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조우: 김보영의 「얼마나 닮았는가」와 두나의 「두 번째 유모」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9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39쪽.

말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을 드러내는 작가들이 있다. 바로 2010년대 들어서 독서 대중의 큰 호응을 얻으며 한국문학 장에서 급부상하기 시작한 SF 작가들이다. 이들은 본격문학이 주류를 이루었던 기존 문학장에 새로운 분위기를 불어넣으며 이전에 많이 다루어지지 않던 과학, 기술 등의 새로운 소재를 적극 도입하였다. 더욱 주목할 점은 세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는 새로운 인물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작가들은 기존 재난서사의 전통과 SF 장르의 관습을 충실하게 계승하여 인류가 마주하게 될 다양한 전지구적 재난들을 작품의 주요 모티프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급속히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SF 작가군들 가운데 재난서사를 활발하게 창작하고 있는 세 명의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가운데 특히 김초엽은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대상과 가작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래 약 5년여의 기간 동안 두 권의 작품집과 세 편의 중 장편소설(한 편은 청소년 소설), 그리고 짧은 소설을 담은 단행본을 연거푸 발표함으로써 한국 문학계의 새로운 동향을 주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과 함께 본격문학과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정세랑과 1990년대부터 작품을 발표해온 듀나의 소설 등 미래에 다가올 재난을 소재로 한 SF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세 명의 작가들 외에도 비교적 최근에 한국 문학에서 영향력의 지분을 넓혀가고 있는 SF 분야에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특히 김초엽과 정세랑, 듀나의 작품들을 다루는 이유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대중적 영향력이나 지명도만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이들의 작품들은 인간 중심의 근대 문명을 비판하는 동시에 전 지구적으로 인류에게 닥쳐올 재난과 재난 이후에 펼쳐질 세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이 전개하는 미래의 세계상에 대한 비전은 문학의 정치성과 윤리를 강조해온 2010년대 이후 한국문학의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SF 장르 특유의 미래 지향성, 유토피아에 대한 회구와 맥락이 닿아있다. 이들이 쓴 재난서사들은 각각 세계에 닥쳐온 재난을 극복한 이후 새롭게 문명을 재건하는 과정을 그리거나(김초엽) 재난을 통해 멸망한 이후 새롭게 열릴 우주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상상하거나(듀나) 살아남은 인간 입장에

서 새로운 문명을 설계하는(정세랑) 특징을 보여준다.

이 SF 작가들이 가세한 한국문학은 서서히 희망, 그리고 다음 세대의 윤리를 말하기 시작했지만 이들이 말하는 희망은 과거의 재난서사에서 추구하던 희망적인 대안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지닌다. 젊은 작가들이 제시하는 윤리는 재난을 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난을 받아들이는 한편 근대 문명에서 추구하던 희망이나 욕망을 포기하는 데서 온다. 심지어는 재난이 초래하는 비상사태 자체가 새로운 희망의 근거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들이 보여주는 전망은 ‘재난’을 계속 살아나가야 할 ‘삶’의 설정 값 또는 뉴노멀로 받아들이는 한편 그 과정에서 ‘인간’이라는 정체성조차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인식을 통해 나왔다든 데서 의미심장하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세계관이 대책 없는 긍정이 아니라 2000년대의 암울한 현실인식으로 점철된 재난서사들을 통과하면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재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과 정세랑의 단편 「리셋」과 「7교시」, 더불어 듀나의 단편 「두 번째 유모」, 등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재난서사이면서 동시에 재난 이후에 세계를 재건하는 과정 혹은 재건된 세계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이들 소설들은 재난을 극복하거나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⁸⁾ 이러한 변화에서 핵심적인 것은 개인을 유럽중심적이고 규범적인 휴머니즘 이상에 연동된 ‘인간(Human)’으로 특권화해 해온 근대적 이념을 폐기하고 재난의 상황과 공생할 수 있는 다른 정체성을 갖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이전 세계관에서 생명과 삶의 단위로 여겨졌던 개인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은 최근 철학과 문학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과 상당한 공통점을 보인다. 기존의 휴머니즘은 근대적인 정상성의 이념에 근거를 둔 인간됨의 양식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대의 포스트휴머니즘은 주체와 자아에 대한 ‘다른’ 비

8) 본 연구에서 다룰 작품들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김초엽, 『지구 끝의 온실』, 자이언트북스, 2021; 정세랑 『목소리를 드릴게요』, 아작, 2020; 듀나, 『두 번째 유모』, 알마, 2019. 앞으로 이 책들에서 인용할 때는 본문 옆에 작품명만 병기하기로 한다.

전을 제시하고 있다. 로지 브라이도티는 새로운 주체성의 단위에 대한 실험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개인화된 자아를 강조하던 이념에서 벗어나 “인간 행위자와 인간-아닌 행위자들 사이의 횡단적 상호연계, 즉 ‘배치(asmontage)’라고 부를 만한 것을 상상”하라고 권유한다.⁹⁾ 앞에서 언급한 서사에는 전통적인 인간이라는 단위가 재난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소진된 이후에 출현한 다양한 존재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유전자 편집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생명체이기도 하고 식물 또는 동물과의 공생 또는 공진화를 통해 재배치된 존재이기도 하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생명인 비오스(bios)가 아닌 일체의 비인간적 생명 그리고 생기적 물질을 포함한 조에(zoe) 적 삶의 상태로 정향되는 모습을 보여준다.¹⁰⁾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잠깐씩 소개한 작품들을 차례로 짚어나가면서 한국 문학에 새로운 향방을 제시하고 있는 SF의 비전이 포스트휴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전망과 일치함을 밝히고자 한다.

II. 재난의 경험과 재건의 상상력: 『지구 끝의 온실』

김초엽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통해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후 두 번째 장편 『지구 끝의 온실』(2021)에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구상을 밝힌다. 이 소설에는 세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재난이 전면으로 등장한다. 바로 자가증식하는 먼지인 더스트의 창궐이다. 이 재난은 2055년부터 2070년까지, 약 2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는다. 소설은 더스트가 종식된지 약 60년이 흐른 2129년 ‘더스트생태연구센터’라는 이름의 연구소로부터 시작된다. 이곳에서 일하는 아영은 식물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만난 나오미와 아마라 자매를 통해 과거 더스트 시대의 사연을 듣는다.

9)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이경란 옮김, 아카넷, 2020, 62쪽.

10) 로지 브라이도티는 종(種)의 경계를 넘어서서 존재의 양태를 가로지르는 이러한 급진적인 변신의 과정을 가리켜 인간-아님, 즉 조에(zoe) 쪽으로 ‘생명’의 개념이 확장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에란 인간의 삶의 양태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고대 그리스인의 용어로서, 비인간적 생명 그리고 생기적 물질을 포함한 개념이다. 브라이도티, 위의 책, 68쪽.

더스트 시대에 소수의 사람들은 돔을 만들어 그 안에서 더스트를 피해 겨우 생존했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약육강식의 폭력을 행사한다. 더스트에 선천적인 내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실험체가 되었던 두 소녀는 가까스로 도망쳐 돔 시티 바깥의 도피처인 프림 빌리지에 살게 된다. 숲 한 가운데 있는 프림 빌리지는 언덕 위에 있는 큰 온실과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의 마을로 이루어진 비밀 은신처였다. 온실 안에는 레이첼이라는 이름의 식물학자가 살고 있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종자와 분해제를 만들어서 나눠준다. 그리고 레이첼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온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일종의 계약 관계로 이루어진 이 마을에서 자매는 마을 지도자 격인 지수 씨를 만난다. 잠깐의 평화를 누리던 이들은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 프림 빌리지가 무너지자 다시 흩어진다. 충격적인 것은 신비스런 분위기의 식물학자 레이첼이 70퍼센트 이상 기계로 되어 있는 사이보그라는 점이다. 또한 레이첼의 몸을 정 비해주면서 곁에 있게 된 지수 씨와 레이첼 씨와 미묘하게나마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사실도 기억할 만하다.

이후의 이야기는 2064년 인류가 더스트 분해제를 살포할 때까지 이어진다. 자매들은 마을에서 배운 기술을 이용해 레이첼이 개발한 식물 모스바나를 퍼뜨리고 분해제와 약초들을 나눠주면서 생존한다. 두 자매 뿐 아니라 프림 빌리지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제각각 흩어진 곳에서 모스바나를 번식시킨다. 푸른 빛의 신비한 빛을 발하는 모스바나는 무서운 번식력과 독성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 더스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재난의 종식에 기여했다는 인정을 받게 된다. 소설은 모스바나라는 식물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처음부터 던지고 이야기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시원한 답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모스바나라는 존재가 지닌 양면성 때문이다. 모스바나는 그저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재할 뿐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와 용도에 따라 어떤 때는 독이라고, 또 다른 경우에는 약이라고 이름 붙인다. 그러나 더스트 시대라는 극한의 재난 속에서 모스바나는 인간과 함께 이익을 주고받는 공생체가 된다.

인간이 모스바나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모스바나가 인간을 이

용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둘은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모스바나는 인간에게 적응하는 전략으로 그 종의 번영을 추구하고, 인간은 모스바나를 절실히 필요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스바나와 인간은 일종의 공진화를 이룬 셈입니다.(『지구 끝의 온실』, 371쪽)

수많은 생명들을 몰살시킨 더스트는 2019년 이후 전 세계가 맞이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와 겹쳐진다. 소설 속의 세계는 이런 전 지구적 재난을 마주하자마자 너무나 맥없이 무너져 버린다. 애초에 더스트 자체가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의 무분별한 실험에 의해 발생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 속에서 지구의 생명체들은 이 재난의 시기를 겪은 후 더 좋은 세상을 재건하는 희망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생존자들이 지구를 재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더불어 살아가기’였다. 인류는 모스바나를 통해서 지상의 생명체들끼리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운다. 김초엽이 소설을 통해 그려낸 세계의 모습은 철학자이자 생물학자인 도나 해러웨이가 그물망 혹은 실뜨기 놀이의 형상과 일치한다.¹¹⁾ 해러웨이는 인류가 만든 근대문명이 지금의 사회 불평등과 환경 위기 등을 초래했다고 말한다. 이를하여 ‘인류세’¹²⁾라고 불리는 현재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해러웨이는 지구 행성 위에 있는 모든 존재가 독립된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서로 함께 되어가는(becoming-with) 존재로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해러웨이는 존재들이 n-차원에서 서로 얽히며 살아가는 틈새 공간을 테라폴리스(terrapolis)라고 부른다.¹³⁾

이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모두 퇴비(compost)로 비유된다. 퇴비는 부식토(humus)로서의 인간이 취하는 또 하나의 형태로서 죽은 것들과 산 것이 섞이고 자아와 타자가 섞이면서 서로를 위해 양분을 공급하는 관계를 이룬다. 인간과 모스바나가 공생체를 이루고, 사이보그인 레이첼과 정비공 지수 씨가 함께 살아가고, 식물학자인 레이첼이 만든 온실과 마을 사람들의 거주지가 어

11) 도나 해러웨이, 『트러블과 함께 하기』, 최유미 옮김, 마농지, 2021, 22~23쪽.

12)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는 인류가 지구의 기후와 생태계를 변화시켜 만들어진 새로운 지질시대를 말한다. 클라이브 헤밀턴, 『인류세』, 정서진 옮김, 이상복스, 2018, 5-6쪽.

올려 마을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만든 프림 빌리지는 재난의 시대를 건너나가는 틈새공간인 ‘테라폴리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 위의 존재들이 항상 서로에게 이로운만 안겨 주는 것은 아니다. 모스바나처럼 생명체는 서로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지만 이를 긍정하는 동시에 트러블 즉 곤란함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한다. 우리에게 해로울 수도 있는 여러 동식물, 미생물과 곰팡이, 사물, 심지어 바이러스나 무형의 알고리즘들과 서로 평등하게 공생하려면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무기물과 유기물, 죽은 것과 산 것이 함께-되기 안에서 서로 섞이는 퇴비는 함께 세계를 생산(sympoesis)하는 관계가 된다.¹⁴⁾

멸망과 재건은 지구의 풍경을 바꾸었다. 더스트생태학은 그 변화의 풍경을 포착하는 학문이다. 어떤 것들이 사라졌고, 어떤 것들이 새롭게 나타났으며, 어떤 것들이 적응해서 변화한 지구의 구성원이 되었는지가 더스트생태학의 연구 대상이었다. (...)

많은 종이 멸종을 향해 갔지만, 빠르게 더스트에 적응해 변이한 식물들도 있었다. 학자들은 더스트 자체가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유도해 빠른 변이를 촉진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 더스트로 죽은 숲 위에 새로운 생물종이 숲을 꾸리는 덧생태계도 나타났다. 그렇게 생겨난 변형종들은 더스트가 사라진 이후에도 한동안 자연을 지배하면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풍경을 만들어냈다. (『지구 끝의 온실』, 82-83쪽)

결국 김초엽의 SF와 해러웨이 등의 사상가들이 말하는 것은 재난을 두려워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나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미래의 세계도, 현재의 희망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다. 즉 인간을 예외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반려들과 함께-되어가는 관계적 존재, 함께 생성적 반복 가운데 위여있는 존재인 포스트휴먼, 나아가 퇴비로 여길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복수종의 ‘부활’을 실천할 인류의 새로운 삶 형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며 누더기가 된 생명력으로도 부활과 희망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된다.¹⁵⁾ 심지어 재난으로 인해 ‘나’로 여겼던 개체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나라는 퇴비를 통해 생명의 연속체인 ‘우리’는 지속될 것이다.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

13) 해러웨이, 앞의 책, 23, 34쪽.

14) 해러웨이, 앞의 책, 61, 62쪽.

재들에 대한 새로운 상상은 상은 근대 이후에 정립되었던 ‘자아’와 ‘개체’라는 단위와 ‘행위주체’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재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체는 “다수의 타자와 중요한 유대를 맺고 기술로 매개된 지구행성 환경과 융합하는 주체”인 것이다.¹⁶⁾ 이러한 포스트휴머니즘적 관점에 의거하여 인간관과 세계관을 전회함으로써 재난과 그 이후에 도래할 세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III. 방법으로서의 재난과 새로운 문명: 「리셋」, 「7교시」

재난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세대는 더 이상 파국으로 끝나는 우울한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쓰지 않는다. 정세량의 소설에서는 오히려 날로 부패해가는 구 문명을 바로잡고 신 문명을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필요악’으로서의 재난이 등장한다. 재난을 바라보는 이런 극단적인 관점은 전체의 인성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사고, 혹은 허무주의가 섞인 위악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정세량의 소설에서 이러한 세계관은 방치해두면 스스로 재난으로 걸어가게 될 인류세 문명에 대한 깊은 절망감과 생명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그의 소설은 임박한 위기에 대해 경고하는 한편, 설령 이러한 파국이 실제로 벌어지더라도 역사를 위해 긍정적인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한 절박한 요구의 표현인 것이다.

정세량의 단편 「리셋」은 어느날 갑자기 외계에서 온 거대 지렁이들로 인해 인류가 파국에 이르는 상황으로부터 시작한다. 소설은 남쪽, 북쪽, 동쪽, 서쪽으로 행선지를 택한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이들은 눈앞에 닥친 상황에 절망하면서도 “지렁이들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도시를, 인류 문명을 끝장내려고 내려온 것”(44쪽)이라고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

모닥불 가의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나를 죽이고 싶어할지 모르지만, 지렁이들은 제때 왔다. 우리가 다른 모든 종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기 전에 와쫘다는 게 감사할 정도다.

15) 주기화, 「신유물론, 해러웨이, 퇴비주의」, 『비교문화연구』 제65집, 비교문화학회,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22, 136쪽.

16) 브라이도티, 앞의 책, 121쪽.

레도는 가까스로 수정되었다. 나는 배낭에 들어 있던 은박 담요를 덮고 잠들며 가끔 웃는다. 내가 죽고 다른 모든 것들이 살아날 거란 기쁨에. 기이한 종류의 경배감에.(「리셋」, 45쪽, 강조는 인용자)

네 명의 서술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세 번째 등장하는 ‘나’이다 그는 재난으로 인해 가족인 두 엄마를 잃은 십대 소녀 앤이다. 그러나 그는 지령이를 연구하는 생물학자였던 어머니들의 영향을 받아 지령이들의 생태를 잘 알고 있고, 그 지식을 이용해서 당국에 도움을 준다. 지령이를 인간 못지않게 친숙하게 느끼는 주인공에게 지령이들의 도래는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네 종류의 선충이 ”네 종류의 플라스틱을 먹어. 가장 흔히 쓰이는 네 종류고.”

“우연치고는…….”

“우연일 리가 없지. 우리한테 필요했던 일이잖아. 누군가 설계한 거고 아주 기분 나빠.”

나는 엘엘만큼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엄마들이 나를 체로 웨이스트로 살게 한 것은 점점 심해지는 쓰레기 문제 때문이었으니까.(「리셋」, 69쪽, 강조는 인용자)

앤은 이 모든 재난들이 미래에서 온 자신이 설계한 것임을 알게 된다. “지령이를 보낸 것은 나였다. 미래의 나. 모든 것이 잘못된 후의 내가 세계를 수정하기 위해. 나 혼자만 한 것은 아닐 테지만 그 설계에 참여한 것만은 분명했다.”(75쪽) 앤이 예감했던 것처럼 거대 지령이들의 창궐이라는 사건은 망해가는 세계를 끝내고 ‘리셋’한 후에 생명친화적인 새로운 문명으로 재건하기 위해 일으킨 ‘방법으로서의 재난’이었음이 밝혀지게 된다.

두려움을 원료로 인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지령이들이 다다르지 않았던 땅 깊은 곳에 도시를 지었고, 지열 발전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냈고, 어떤 쓰레기도 도시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자원은 도시 안에서 끝없이 순환되었다.(...) 시행착오를 거치고 천천히 요령을 깨치며 문명을 다시 이룩해내야 했다. 지령이들이 오기 전보다는 분명 덜 폭력적인 문명이고, 어쨌든 병원도 학교도 있으니 리셋이 모든 걸 리셋한 건 아니어서 다행이다.(「리셋」, 79쪽)

이후의 소설 내용은 새롭게 건설한 문명의 긍정적인 모습을 길게 묘사하는데 할애된다. 종차별 금지법으로 인해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체들을 차별 없이 대하고 지령이들이 사막에서 옥토로 바꿔놓은 땅에서 풍성한 농작물들을 생성

하며 불필요한 물건의 대량생산을 금하는 이 세상은 작가 정세라가 꿈꾸는 유토피아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방법으로서의 재난과 그 이후 재건될 문명에 대한 상상력은 다른 작품에서도 계속 추구된다. 작가는 또 다른 단편 「7교시」에서 인류가 맞이한 끔찍한 재난과 그로 인해 가능했던 새로운 문명의 모습을 제시한다. 이 소설의 서술자는 미래의 학교에서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다. 이들이 듣고 있는 것은 미래에 유달리 강조되는 현대사, 그 중에서도 생명권 수업이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대멸종 이전의 사람들도 생명권의 개념을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 겨우 고려되기 시작한 단계였지만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동물들을 해치지 말자고, 모피를 입지 말자고, 또 그때까지 식생활의 중심이었던 육식을 줄이자고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처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7교시」, 220쪽)

소설에 따르면 '대멸종'이라고 불리는 재난에 의해 인류가 위기에 처하는 것은 2098년이다. 축적된 환경오염으로 인해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1/3만 남은 인류는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문명의 대변환을 촉진시킨 것은 이러한 재난보다 더 큰 재난이 벌어진 이후였다. 바로 우주 이주 계획이 연달아 실패한 다음에야 인류는 비로소 지구에서의 삶을 대폭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당혹스러운 우주 이주 실패가 의도치 않게 혁명을 성공시켰던 것은 역사에서 자주 되풀이 되는 아이러니였다. 사람들은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다음에야 이 작은 행성의 가치를 다시 매겼던 것이다.(「7교시」, 223-224쪽)

그렇게 해서 세워진 새로운 문명에서는 적정 인구수를 25억으로 정하고 조절한다. 이 세계는 환경주의와 페미니즘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이타적인 사람들의 유전자들을 이용한 공동체 출산, 양육이 실시되면서 가족의 개념마저 희미해진다. 인류는 '도심 압축'이라는 개념을 통해 스스로 인류의 생활공간을 좁혀 나간다. 그러자 지구는 빠르게 식물과 동물이 영역을 넓혀나가 평등한 생태영역을 보장 받게 된다. 이들의 생활과 사고방식은 가치관은 물론 입맛과 취향마저 완전히 바뀌버린다. 욕망을 스스로 축소하고 다른 종들과 공생을 선택한

인간은 현재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존재와 여러 방면에서 같지 않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작가는 「리셋」에서 다음과 같이 흥미로운 서술을 덧붙인다.

수요를 한참 웃들게, 아무도 원하지 않는 물건들을 생산했다니 과거의 풍요로움이란 굉장히 기분 나쁜 풍요로움이었던 것 같다. 이어 작은 동물원의 흔적을 찾았을 때는 여러 사람이 토했다. 우리는 본능적인 비위에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변화하기도 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리셋」, 82쪽)

정세랑은 작가로서 지니고 있는 강한 신념과 뚜렷한 윤리관을 작품을 통해 자주 피력하고 있다. 작가에게 있어 재난서사로서의 SF는 자신의 세계관을 압축한 유토피아니즘(utopianism)을 구현할 수 있는 적절한 사고실험의 틀이 되어 준다. 작가는 이러한 신념을 기계적으로 나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분신 격인 등장인물을 통해 서사의 틀로 적절하게 형상화시킨다.

VI. 인류의 종말과 ‘우리’의 시작: 「두 번째 유모」

듀나의 단편 「두 번째 유모」는 2005년에 쓴 작품이므로 2010년대에 발표된 앞의 세 작품보다 앞선다. 그러나 듀나는 항상 동시대보다 앞선 상상력을 발휘해 온데다가 본 연구의 대상 텍스트인 「두 번째 유모」는 오히려 다른 두 작품보다 급진적인 사고실험을 담고 있어 함께 다루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설의 주 무대는 꽤 먼 미래의 태양계, 그 가운데서도 해왕성의 가장 큰 위성인 트리톤이다. 트리톤 궤도 콜로니에는 샘물, 연두, 반디 같은 친근한 이름으로 불리는 아이들이 살고 있다. 그러나 친숙한 이름과는 달리 이들의 외양은 현실의 ‘사람’과는 다소 다르다. 해왕성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유전자 조합을 통해 만들어진 인공적인 존재들이며 해왕성을 관리하고 있는 초지능 인공지능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 서로를 자매로 여기는 아이들은 엄마라 불리는 거대 인공지능의 주도 아래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린은 샘물의 자매들을 바라보았다. 나이는 겉보기에 다섯 살에서 10대 중반 정도. 사람 보다는 개구리에 가까운 둥근 갈색 눈. 반짝거리는 회백색 피부. 굵고 하얀 머리칼. 의외로 얼굴 모양은 다양했고 그중 일부는 지구의 몇몇 인종과 어느 정도 매치시킬 수 있을 정도

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 모두가 갖고 있는 이질적인 외계인 느낌이 사라질 정도는 아니었다.〔두 번째 유모〕, 265-266쪽)

이곳에 서린이라는 여성이 도착한다. 신체 일부를 개조한 사이보그인 그는 자신을 화성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온 두 번째 유모라고 소개한다. 서린의 기억에 의하면 인류의 고향인 지구는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공지능들이 벌인 참혹한 전쟁으로 인해 일찌감치 초토화된 상태다. 생존한 소수의 인류는 화성으로 이주한 후 유전자 합성을 통해 아이들의 유전자 샘플을 만들어 가을과 함께 해왕성에 파견한다. 가을이 해왕성의 어머니에 의해 받아들여 진 후 그녀는 아이들을 보살피는 첫 번째 유모가 된다. 그러나 가을이 사고로 죽자 서린이 두 번째 유모로 온다.

서린이 도착한 직후, 해왕성의 자잘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소형 로봇들인 ‘거미’들이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다. 전멸시킨 줄 알았던 아버지의 잔해가 남아서 나노봇 형태로 흩어져 있다가 안개처럼 군집을 형성해 해왕성으로 쳐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서린은 샘플을 비롯한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의 사악한 의지와 욕망을 잔뜩 담고 있는 안개와 맞서 싸운다.

이 소설은 아이들을 비롯해서 사이보그, 인공위성, 외계인, 거미로 불리는 로봇들 등등 인간이 아니거나 범상한 인간의 전형에서 벗어난 존재들로 이루어진 독특한 공동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들은 서로 이질적이지만 어머니, 자식, 유모, 자매 등 유사 가족 관계로 맺어진 채 공생하고 있다. ‘어머니’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에 의해 연결되어 있기에 이들의 집단은 마치 모계 사회와 같은 외양을 띤다.¹⁷⁾

17) 이들과 함께 가을과 서린처럼 외부에서 온 유모들의 성별은 모두 여성이다. 비록 은유적인 하지만 남성은 전쟁을 일으켜 지구와 금성을 망하게 한 ‘아버지’처럼 부정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세 작가들의 작품은 여성 인물들로 이루어진 페미니즘 이상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에 등장하는 프림 빌리지는 모든 주민이 여성으로 구성 되어 있다. 『리셋』의 주요인물인 앤은 생물학자인 두 어머니와 함께 여성들로 이루어진 가족에서 자란다. 페미니즘은 그가 꿈꾸는 신명명 사회를 떠받치는 주요 이념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듀나의 『두 번째 유모』에는 사악한 욕망의 소유자인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이 논문에서 다룬 작가들은 혈족 관계보다는 유모, 입양가족 같은 대안집단을 지향하는 특징을 보인다.

서린의 말에 의하면 이 아이들은 화성의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지긴 했지만 다른 유전자를 지닌 ‘인간이 아닌 생명체’다. 하지만 또한 서린은 이들이 인간의 유산을 물려받은 인간의 후손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인류의 종말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류(human)의 개념을 확장하면 신인류에 의해 더욱 향상된 문명이 시작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이들은 지금의 인류와 같지 않거나 그보다 뛰어난 존재인 포스트휴먼(posthuman)의 형상으로 그려진다.¹⁸⁾

왜 아버지가 너희들을 싫어하냐고? 왜 그것이 너희를 좋아해야해? 너희들은 정.그.러.워. 인간을 엇비슷하게 닮았지만 인간이 아닌 생명체지. 그러면서도 보통 지구인들보다 뛰어나. 기계와 쉽게 결합하고 우주 환경에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항상성을 유지하지. 항성간 여행 기술이 가능해진다면 너희들은 어머니들과 함께 다른 태양계로 진출할 거야. 내행성들 주변을 돌며 썩어 들어갈 지구인들 대신에.(『두 번째 유모』, 293쪽, 강조는 인용자)

우리가 해양성에 데려갈 아이들은 우리의 진정한 후손이야. (...) 그 애들이 유전적으로 인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 아버지 따위를 만들지 않을 정도로 안정된 정신을 갖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우주에 잘 적응하는 몸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를 이해한다는 사실이야.(『두 번째 유모』, 299쪽, 강조는 인용자)

이 소설이 급진적인 이유는 재난에 의해 유전자가 다른 ‘종’이 만들어져도 이를 ‘우리’ 인류로 부를 수 있는가 하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류의 멸망’, 혹은 ‘역사의 종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재난을 묵시록적 사건으로 간주하고 우수에 젖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전복하면 재난은 생태계를 위기로 몰아넣은 인류를 소멸시키고 더욱 긍정적인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난 새로운 존재의 탄생이라는 긍정적 사건으로 여길 수 있다. 이는 등장인물이나 초점자로 인간 이외의 존재들을 자주 등장시키는 SF 장르의

18) 다른 연구자 역시 이 소설이 ‘인간’의 새로운 형상을 제시한다고 지적했다. 강은교, 「한국 SF와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조우」, 49쪽.

관습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사고실험이다.

“어느 쪽이건 인간에게 미래가 없어” (...) “화성의 어머니는 지구와 금성에서 일어난 일이 다시 반복되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들이 다시 태어나지 않게 막겠지 그건 무슨 의미일까? 자유의지의 끝이야. 모든 것이 어머니의 관리 밑으로 들어가고 인간들의 역할은 축소되겠지. 기술 문명은 21세기 말 수준으로 억제될 거고 존재 이유를 잃은 인간은 어머니의 애완동물로 남거나 그냥 소멸해갈 거야.”(『두 번째 유모』, 298-299쪽, 강조는 인용자)

소설은 어머니라고 불리는 인공지능마저 냉정하고 권위적인 존재로 그린다. 아이들에게는 혈연에 의해 맺어진 전통적인 가족 관계 역시 억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로 비유되는 인공지능들은 폭력적이고 냉정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외부에서 온 ‘유모’들이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지켜낸다. 이러한 상상력 안에서는 이전 세대에서 중시되어 온 혈연 중심의 가족제도나 유전자 중심적으로 편성되어 온 종 차별적 관념이 해체된다. 이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심지어 유전자가 달라도 그들을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윤리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근대 문명의 이념적 근간을 이루어온 휴머니즘에 대한 반성인 포스트휴머니즘적 감수성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¹⁹⁾ 이른바 ‘우리 인간’로 호명되는 집단의 경계선을 반성적으로 성찰하지 않으면 편협한 집단 이기주의 또는 소수자와 약자를 배제하는 폭력의 논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브라이도티는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출한다. “인간-이상이면서 동시에 인간-이하이기를 요구하는 시대에 주체가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 그렇다면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²⁰⁾

그에 의하면 ‘우리’란 “유전자 변형 식품, 로봇공학, 합성생물학, 해양의 산성화와 육지의 사막화, 기술이 주도하는 ‘세컨드 라이프’ 안에 놓여 있는 (...) 행성

19) 강은교는 이 소설의 아이들이 “가부장제의 타자들이 아버지가 부재한 세계에서 생존을 이어나가기 위해 상호 연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탄생한 새로운 인간중으로서 (...) 포스트휴먼 주체들이다”라고 파악한다. 『페미니스트 세계만들기(worlding)로서 듀나의 SF에 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56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 39쪽.

20)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지식』, 김재희, 송은주 옮김, 아가넷, 2022, 73쪽

의 인간과 비인간 거주자들”²¹⁾이다. 이들은 “인간-아닌 행위자들을 끌어들이는 횡단적 동맹”인 포스트휴먼 주체성으로 재구성된다. “이는 포스트휴먼 주체가 지구-땅, 물, 식물, 동물, 박테리아-와, 기술적 행위자들-플라스틱, 전선, 셀, 코드, 알고리즘-과 동시에 관계 맺는다는 뜻”²²⁾이다. 김초엽의 프림 빌리지, 두나의 해양성 거주민들처럼 포스트휴먼 주체들은 혈연이 아닌 친족들,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횡단적 관계를 맺는 “난잡한 돌봄 공동체”²³⁾이다. 인간의 종말로 인해 휴머니즘의 독재가 끝나면 비인간으로 취급되어 주체성을 부여받지 못했던 많은 하위주체들이 ‘우리’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다시 말해 인류의 종말이라고 여겼던 사태는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한 ‘우리’의 문명이 시작되는 사건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인류가 ‘우리’의 개념을 폭넓게 여기는 감수성을 갖게 된다면, 그동안 우리/타자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온 혈연이나 피부색, 성 심지어 유전자의 동일성 여부는 해체될 수 있다. 인간에 의한 비인간의 소외와 착취로 인해 유발되었던 인류세의 비극과 재난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길도 모색할 수 있다. 최근의 재난 서사에서 젊은 작가들이 그리는 세계도 바로 이러한 희망적이고도 긍정적인 전망에서 비롯된다.

도나 해러웨이는 『트러블과 함께 하기』를 “어지럽고 불안한 시대, 뒤죽박죽인 시대, 문제 있고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과거의 패러다임 속에서 트러블은 피하거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으로 여겨졌지만 오히려 이 트러블을 만들고, 파괴적인 사건들에 응답(response)을 불러일으킬 것을 촉구한다.²⁴⁾ 해러웨이는 인류세가 자본세가 불러일으킨 공포에 대해 기술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믿음을

21) 브라이도티, 위의 책, 74쪽

22) 브라이도티, 위의 책, 78쪽.

23) ‘난잡한 돌봄’이란 더 케이 컬렉티브의 돌봄 선언에서 사용된 용어다. 더 케이 컬렉티브, 『돌봄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정소영 옮김, 니케북스, 2021, 80쪽. “돌봄 관계가 중을 초월하는 돌봄 관계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난잡”하다는 것이다.” 이현재, 「도나 해러웨이의 포스트휴먼 페미니즘과 난잡한 돌봄 공동체」 『한국여성철학』 제37권, 한국여성철학회, 2022, 35쪽.

24) 해러웨이, 앞의 책, 7, 11~12쪽.

갖는 것, 그리고 너무 늦었거나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상황을 개선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시에 비판한다. 그는 재난의 원인이거나 혹은 재난 자체로 여겨지는 트러블을 오히려 공생하는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지금 당장 가능한 응답을 모색하라고 촉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트러블은 미래로 지연되지 않고 즉각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현재의 사건이 된다. 마찬가지로 페미니즘적 포스트휴머니즘 사상가로서 해러웨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브라이도티는 “포스트휴먼 비판 사유는 정념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정념을 긍정적인 정념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²⁵⁾고 말한다.

재난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대 세계에서 인류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포스트휴머니즘 비전을 제시하는 사상가들의 주장은 최근 한국 재난 서사의 새로운 동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젊은 SF 작가들에 의해 새롭게 쓰이는 재난서사는 인류세를 거쳐오면서 축적된 수많은 문제와 난관을 겪고 있는 현 세대가 현실을 인식하는 새로운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V. 나오며

최근 한국문학은 여성 SF 작가들의 약진으로 인해 큰 활기를 띠고 있다. 서구의 장르인 SF가 처음 한국에 소개된 이래 전에 없는 전성기를 맞고 있는 현상에 대해 많은 평론가들이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인류세로 명명되는 근대 문명에 대한 반성과 실제적인 재난으로 경험되는 기후 변화, 환경오염 등에 대한 위기의식이 독자로 하여금 SF에 관심을 갖게 한 큰 원인으로 진단된다. 인류와 지구라는 행성 단위의 개념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유하기 위해서는 SF라는 문학 형식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

세기 말이었던 1990년대와 9.11 테러 등 문명의 현 단계를 돌아보게 하는 묵시록적 사건을 비롯해 프란시스 후쿠야마 등이 주장했던 ‘역사의 종말’론이 회

25)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174쪽.

자되던 2000년대 초반에 한국 문학에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담은 재난서사들이 많이 쓰이고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문학과 대중문화에서 인류의 목시록적 미래를 쉽 없이 경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직면한 위험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위기가 심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등장한 새로운 문학에서 재난서사는 과거의 암울하고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SF를 주로 창작하는 젊은 여성 작가들은 재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전통적인 관점을 버리고 재난 역시 생명의 일부이자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받아들이는 관점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그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김초엽, 정세랑, 듀나 등 최근 독자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작가 세 명의 작품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작품에서 인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협소한 근대 문명의 시각을 넓혀서 인간 이외의 다양한 비인간들과 공존, 공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소설에서 전통적인 휴머니즘은 해체되고 비인간들의 행위 주체성을 인정하는 포스트휴머니즘적 전망이 드러난다. 특히 본 연구는 여성 SF 작가들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적 포스트휴머니즘적 상상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한국문학의 새로운 실험은 인간의 오만과 탐욕으로 인해 축적되었던 인류세의 오류를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미래의 위기에 대처하려는 대중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문학들이 절망보다는 긍정으로, 부정보다는 낙관적 전망으로 나아가는 희망적인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는 재건의 전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참고문헌

1. 기본서

- 김초엽, 『지구 끝의 온실』, 자이언트북스, 2021.
 정세랑, 『목소리를 드릴게요』, 아작, 2020.
 듀나, 『두 번째 유모』, 알마, 2019.

2. 논문

- 강은교, 「페미니스트 세계만들기(worlding)로서 듀나의 SF에 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56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 39쪽. 425쪽. 412~430
 강은교, 「한국 SF와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조우: 김보영의 『얼마나 닳았는가』와 듀나의 『두 번째 유모』를 중심으로」, 49권,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36~62쪽.
 김영삼, 「구원 없는 재난 서사와 혐오의 정서 - 김애란의 『물속 골리앗』과 손흥규의 『서울』을 대상으로」, 『현대소설연구』 제7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67~107쪽.
 김지혜, 「재난 서사에 담긴 종교적 상징과 파국의 의미 김애란, 윤고은, 정용준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70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57~78쪽.
 복도훈, 「세계의 끝: 최근 한국소설에 나타난 재난의 상상력과 이데올로기적 증상」, 『인문학연구』 42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7~42쪽.
 소영현, 「민주화의 역설과 한국소설의 종말론적 상상력 재고」, 『한국문예창작』, 제12권 1호, 한국문예창작회, 2013, 237~265쪽.
 주기화, 「신유물론, 해러웨이, 퇴비주의」, 『비교문화연구』 제65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22, 117~146쪽.
 이현재, 「도나 해러웨이의 포스트휴먼 페미니즘과 난잡한 돌봄 공동체」, 『한국여성철학』 제37권, 한국여성철학회, 2022, 27~60쪽.
 장성규, 「파국과종말의상상력: 한국 재난 서사 콘텍스트를 중심으로」, 『스토리엔이미지텔링』 제19집, 2020, 건국대학교 스토리엔이미지텔링연구소, 189~211쪽.

3. 단행본 및 기타

- 더 케어 컬렉티브, 『돌봄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정소영 옮김, 니케북스, 2021.
 도나 해러웨이, 『트러블과 함께 하기』, 최유미 옮김, 마농지, 2021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이경란 옮김, 아카넷, 2015.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지식』, 김재희, 송은주 옮김, 아카넷, 2022.
지그문트 바우만, 조은평 · 강지은 옮김,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동녘, 2010,
클라이브 헤밀턴, 『인류세』, 정서진 옮김, 이상박스, 2018.
강유정, 「재난서사의 마스터플롯」, 『세계의 문학』 151호, 2014년 봄호, 민음사.

Abstract

**New Trends in Disaster Narratives and the Emergence of
Posthumanistic Sensitivity
- Focusing on Kim Cho-yeop, Jung Se-rang, Djuna's Fictions**

Yi, Soh-yon(Yonsei University, Lecturer)

This study examines the disaster narratives that appeared in Korean literature around the 2010s and reveals the new posthumanistic sensitivity that appeared in these narratives. From the late 1990s to the early 2000s, many apocalyptic narratives dealing with disasters were created in Korean literature and popular culture. However, the disaster narratives of that period are filled with signs of despair and destruction for mankind, which have been foretold the end of the world. In recent Korean novels released around 2010, the disaster narratives have begun to change significantly. Among them, some writers have shown more dramatic changes and revealed new sensitivities to the end of history. These writers faithfully inherit the traditions of existing disaster narratives and the customs of the SF genre and deal with various global disasters that humanity will face. New disaster narratives reveal posthumanistic sensitivity by presenting new civilizations in which humans coexist with non-human beings.

Key Words: disaster narrative, disaster, apocalypse, postapocalypse, SF, feminism, trouble, human, non-human beings, symbiosis, posthumanism, anthropocene

논문 투고일 : 2022년 09월 25일
심사 완료일 : 2022년 10월 17일
게재 확정일 : 2022년 10월 19일